

출력날짜 : 2019-06-09

선교위원회 확인

서기 지도목사 위원장

4. **평가항 :**

447 이 상영 6/16

[illegible]

담당	분과장
----	-----

2421 6/9
262224

6/9
정재영

※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2019. 3. 양식변경]

소 감 문

작성자 : 박성철 집사

팀명 : 인도네시아 3팀 (#2019-33)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7천 명 중 90%가 무슬림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소수 7-8%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 많은 핍박과 불이익을 받아 우리와 함께 사역한 현지 교회 (비지간동, 밀알교회) 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목사님이 계셨고 해맑은 웃음이 가득한 수많은 현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인도네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교회와 협력하여 양로원과 어린이 학교 그리고 노방전도 (제한된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비 된 백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교 기간 내내 심방을 하면서 믿지 않는 성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그리고 병마와 가난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말씀, 찬양과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의 밝은 웃음과 섬김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단기선교는 하나님과의 여행이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임을 다시금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소감문

<하나되어>

인도네시아 3팀 박애희

우리 인도네시아 3팀은 8월 3일부터 10일까지 박성철 팀장님과 6명의 팀으로 자카르타에 있는 밀알교회를 다녀왔다. <토구 목사님 사역> 고아원을 다녀왔는데 그림 없는 책과 복음팔찌 천지창조에 대한 모든 것들을 통해 찬양과 율동을 함께 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어린이들이 모두 십자가를 알고 전하는 군병들로 자라나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기도했다.

양로원에 가셔도 말씀선포와 찬양율동을 중심으로 사랑을 전하며 마지막 주님 부르실 그 날까지 주의 손 붙잡으시기를 기도했다.

초등학교에 가서 학부모님들께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 모인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하실때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공급하시는 주님의 한없는 희생을 전하며 구원의 가정가정 되기를 기도했다.

또한 각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며 관계전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멀고 어렵고 몸이 아파 혈액암으로 교통사고로 직업~~을~~을 잃고 아기를 낳지 못해 안타까운 차비까지 걱정되어 지쳐있어 주님을 외면하던 가정들 공백기간도 있었지만 목사님의 열정적인 기도와 권고하심으로 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품으로 돌아와 열심히 교회를 섬기려는 모습, 가족과 이별을 당하면서까지 쫓겨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매도 있는 것을 볼때 주님께 감사드렸다. 어두운 영의 세계속에서 날마다 몇 번 켜이나 울리는 회교도들의 경정을 들으며 주변이 다 회교도민들 틈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라가는 싹들의 움직임은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했다. 무슬림이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접근할 수 없는 대상이 아니라 전도하면 얼마든지 택하신 백성들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우리 팀원 모두는 하나되어 기쁘게 선교를 마칠 수 있어 감사했다.

인도네시아 3팀 이 화수 집사

소감문
우르도 영으르도 가난한 땅 인도네시아 ~

그러나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온 몸과 복음만이 답임을 알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정말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헌신하시는 도우목사와 성도들.
지금 밀알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이 없다 보니 건물 임대료를 못내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다른교회 건물을 빌려 러부살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마 없어 교회를 못오는 분들
방한에 까지 무슬림 경외는 소리가 들려 세뇌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아주 열악한 조건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목사님에 끊임 없는 관계 전도로 인해 성도님들 영이 살아 있고
또 무슬림이 개종이 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너무나 곤고한 삶 ~ 이대로 끝이라면 절망이고 비극일수 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께 사랑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값을
치뤄주시고 부활 하셨으며 완전한 구원을 위해 장차 오실 주님과 늘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 버틸수 있다고 승리하듯 살수 있다고 외치고 또 외쳐야겠습니다
조금만 아끼면 한 아이의 등록금이 되는데

우리 몇명의 아이들의 등록금을 먹기도 하고 늘 위해 쓸수 있음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거룩한 부름으로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구합니다 주님 ~

지금 출석하는 밀알교회 성도님들이 한알에 밀알이 되어서 인도네시아 땅
복음 4명에 주춧돌이 든든히 세워주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의 섭리가 기대 됩니다
복된 발걸음 허락하시고 하나님 구원 사역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

롬 : 10 : 13 ~ 15

누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 하였으면 어찌 전파 하리요
기록된바 아람답도다
종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반이여
함과 같으니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밀알교회 협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주에게 세를 내지 못하여 이사를 가야 하는데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예배 드리던 건물은 비워 주고
친구 교회에서 주일 11시 예배 1번만 드리고 후의 모임은
복사님 사택에서 모인답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사역이었는데
젊은이들로 채워져 있고 태어난지 몇개월아기를 가진 부부부터
신혼부부도 여러쌍 있었는데 결혼을 하면 다른데 가지 말고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4쌍이 결혼하고
작금에 데리고 왔다고 해서 참 기뻐요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어요

मुस्लिम 가족에서 한 자매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쫓겨 ~~나갔~~ 나왔대요 이 자매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मुस्लिम인 가족들은 그 나쁜 종교를 왜 믿냐고 만류했지만
이 자매는 교회에서 배운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서는 교회에 가는 것이 나쁜 종교가 아니구나 하고
인정하라는 ~~말~~ 지금은 엄중하고 같이 산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JX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매의~~
11월 ~~이런~~ 어떻게 기도해 볼까요

자카르타의 밀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필요가 채워져서 मुस्लिम 땅 한가운데 십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3팀 지 아 연

올해에도 급하게 선교팀을 불러모아 주었다. 6명이된 우리 팀은 선교훈련을
 바르게 시작하며 모두 채워나갔다. 각자의 기로제목을 낼때. 선교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제1제목과 각자 성경중만한 가운데 서로를
 나눌라 낮게 해달라고 서로 사랑하며 공로가 여길수 있게 해달라고 기로하며
 선교지로 향했다. 선교첫날 인도네시아 밀만교회를 섬기시는 도구목사님
 의 좋은 선교. 그날에는 우슬림 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한자로는 복음을 전할수가
 없어서. 목사님의 신로를 가정으로 방문하기로 했다. 그교회는 교회량이 기한이 만료하여
 같은 교회의 교회를 빌려 주일만 예배를 드린다. 신로수가 100여명 정도인데
 10시가 조금넘으니 정수이들이 준비찬양을 시작하며. 1시간 30분 정도의 예배가
 어진이 특별찬양과 청년부 특별찬양 교인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로. 각가정
 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모은 교인들이 나누는 교제의 시간으로. 이주 은혜로운
 주일 후에 기로제목이 있는 한가정. 한가정을 목사님과 신방은 하였다
 제일 먼저 양로원에게서. 복음 광지를 전로 하고. 목사님이 다시 설명하고.
 진지하게 듣는 어르신의 눈동자에 정말 믿음이 부려져 열매맺을수 있음을
 기로 하였다 또 다른 가정 가정은 심방하다. 아이를 주심사하는 가정.
 시동생이 우슬림에서 나타 교회를 나개로 약속한 가정
 부부중 한분의 열심있는 교회생활은 간구하는 가정. 우슬림 기로문이 스카커이몰려
 퍼지는 가운데에서도 기로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신혼가정과. 상가집
 먼곳에도 달려가는 목사님의 열정에 우리는 매일 매일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들이였다. 믿는가정 많은 다니라 보니. 이나라가 어지 많아
 많은 세상이 열매 맺을수 있음을 간구하며 기로했다
 하루 하루. 차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건강을 기로 하며 건강하리라
 이웃이 우슬림의 나라가 점점 기로로 돌아온것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특히 밀만교회의 정수이들이 큰 교회로 나아간듯 있음을 보았다
 내분에는 교회량이 안정되어서 더 많은 교인들이 나타. 서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기로했다. 많은 인정받은 그들을 보고 내가 러. 은혜받은
 인도네시아 선교가 되었다. 주님 저를을 사랑하 주시고 공로가 여겨주셔서
 더 좋은 교회량에서 주님을 찬양드리고 밀만교회가 되게 해주세로 아~멘

인도네시아 선교 소감문

2019.8.10.

1. 이번 선교기간 8월 3-10일 날씨는 우리나라의 늦봄 또는 초여름 날씨이었다. 교우들은 무더위에 수고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피서를 온 기분이었다.

2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에게 전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무슬림에 대한 선교의 문이 꼭 닫힌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무슬림이었던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현지 교회의 교우들을 심방하는 동안 과거 무슬림이었던 분들이 결혼을 계기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여럿 있었고 그 동거하는 형제로서 아직 무슬림이라고 하는 분에게도 조심스럽게 선교팀원들이 전도할 수도 있었다.

현지교회의 교우로서 버스터미널에서 음식료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의 영업소에 온 사람들에게 선교팀원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전도할 수도 있었다.

한 여자 성도님이 터미널 경내에 자리를 깔아 놓고 마련한 쉼터에 10여명의 남자 어른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분들이 전도를 받고 전도지에 적한 찬송악보를 읽으며 큰 소리로 같이 찬송을 부르시는데 “저래도 되나?” 싶었다.

무슬림에게도 그 관계와 그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선교가 가능한 것이었다.

3. 이번 선교 팀이 1차로 말씀을 전하면, 현지 교회의 토우 목사님이 그 전도 메시지를 현지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그리고 합당한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 들려주면서 설명하고 그들에게 맞는 기도를 선포하는 방식으로 그 때 그 때의 전도를 끝맺었다.

토우 목사님이 우리를 전도 대상자에게 인도하고 우리가 그 분들에게 전도하면 다시 토우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 들려주며 말씀을 성실하게 설명하면 그들이 진지하게 말씀을 받았다.

4 마지막 날 맨 마지막 순서로 토우 목사님의 조카의 가정에 인도되었다. 목사님은 조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Symbolic Christian)이니 우리가 전도하면 좋겠다고 우리를 그 집으로 인도하셨다. 선교팀원들이 조카분과 그의 남편에게 사영리를 생각나게 하는 전도 팔찌를 끼워 드리면서 1차 전도를 한 후 토우목사님이 그 전도내용을 재차 진지하게 설명하고 그 분들의 기도를 선포하는 방식으로 전도가 이루어졌는데 조카분이 매우 진지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였다. 때마침 시골에서 조카의 시누이의 결혼식을 위하여 오셔서 그 집에 머물고 계시던 조카의 시부모님들에 대하여는 토우목사님이 그 고향의 부족 언어로 전도하고 또 그 분들의 기도를 선포하는 방식으로 전도를 하였고 선교팀원들이 전도 팔찌를 끼워드렸다.

5. 이번 협력교회인 토우 목사가 목양하시는 “밀알교회”는 건물임차료를 못 내어 모임 장소를 다른 교회 건물로 옮겨 일부 성도들이 흩어지고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초신자가 많고 교우들이 젊고 아기들이 많고 교우들 인상이 좋았다. 결혼 또는 가족관계로 무슬림에서 개종한 분들도 여럿 있었고 어려운 중에 보르네오에 선교도 하고 있었다. 희망이 엿보이는 교회이었다. 토우 목사님은 성경적이고 건전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6 팀원들이 끝까지 신중하게 행하시는 것 좋았다. 8교구 교우들이 팀 주축이 되고 적극 협력한 이번 인도네시아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하다. (박 홍규)